

300명 의인의 수가 차야 인류 구원 완성돼

매일 예배를 빠지면 영생 못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7천 년대에 가서야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예요. 이제 겨우 6천 년대를 넘어서 7천 년대를 향하고 있는 초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천 년 동안 살아야 구원이지 가다가 죽으면 구원과 상관 없이 없죠? 매일 제단을 쌓아야 영생이지 하루라도 빠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백의 사정이라. 아시겠어요? 영생이 귀해요, 아니면 육적으로 사는 게 귀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영생을 얻지 하는 변명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때문에 낮에 예배를 못 보는 사람은 밤에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놔죠? 그런대로 밤에 예배를 보아야 되는 거지 아침에도 예배 안 보고 저녁에도 예배 안 보고 그러면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쓰여 있다고 그랬죠?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나온 다음부터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꼭 죽게 되어있어요. 영생 못 얻어요. 아시겠어요? 빠진 사람 영생 얻나 못 얻나 두고 보세요. 다 죽어요. 빠진 사람 죽게 되어 있어요.

6000년 묵은 마귀를 죽이려면 매일 예배를 봐야 돼

여러분들 속의 '나라는 의식'이 6천 년 묵은 붉은 용 마귀라고 그랬죠. 6천 년간 묵은 붉은 용 마귀인 고로 그제 좀처럼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죽이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예배를 봐야 그래야 구세주가 죽여줘요. 아시겠어요? 마귀를 죽여 주는 고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인 안 되면 영생할 수 없어요.

이 제단은 매일 나오는 사람만 예배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거지 매일 나오지 않고 빠지는 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루 빠진 자 들어오게 하는 자도 동참죄가 되는 거죠. 그런고로 동참죄를 짓는 자도 지옥이에요.

매일 번제를 드려 그 마귀를 계속해서 공격하면 결국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진 다음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놈을 죽일려면 사람까지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하라는 대로 순종을 안 하면 큰일 나요. 구원과 상관 없이 없어.

매일 예배를 안 보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이 사람은 매일 예배를 보라는 말씀을 매일 제단에 설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루 예배 빠지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 식구가 아니예요. 제명하세요. 이를 지워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이들을 지우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알곡만 데리고 가야 쉽지 그 마귀새끼들이 들랑 거러면 이 단에 선 사람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새끼들이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단에 선 사람이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드는 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을 키우기가 힘들어져, 안 힘들어져? 힘들어져야 돼

의인을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고로 그런고로 이 제단은 하루라도 빠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얼마나 말씀 드렸어요? 이 사람이 역귀 식구들만 구원하러 온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예요. 이 지렁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죠? 그래야 말 잘



구세주 조희성님

듣는 사람 데리고 영생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의인 300명이 나오면 천 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의인이 10명 생기고, 100명 생기고, 200명 생기고, 300명만 생기면 10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 년까지 안 가고 200년 만에 완성된다면 6천 200년에 안식일이 되어 버려요. 의인 300명만 있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초창기부터 말했죠. 의인이 안 되면 나머지는 버릴까, 안 버릴까? 버려버려요. 의인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구원이지 하나님이 의뢰하여 구원이지 하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영원무궁토록 같이 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면 가족도 안 되고 원수 마귀새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매달려야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니

까 좀 바주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백의 사정이라. 바빠서 지옥 지발로 가는 거야. 이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못가는 길이야. 아예 그건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피로 바꾸는 작업을 해

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피를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피를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면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피가 사람의 피를 그대로 가져가지고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고도로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구원 얻을 자는 24시

간 늘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 24시간 늘 기도해야 돼요. 걸어 다녀도 기도를 해야 되고, 앉아서 예배를 봐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초초로 구세주를 바라봐야 돼

초초로 구세주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늘을 봐도 구세주 얼굴이 보여야 되고, 땅을 봐도 구세주 얼굴이 떠올라야 되고, 사람을 봐도 구세주 얼굴이 되어야 돼요. 전도할 때도 구세주 얼굴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새기면 전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초로 바라보라고 그랬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라봐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바라봐려고 해도 생각 안 나서 바라봐지지 않으면 사진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사람 얼굴 같으면 왜 안 바라봐지겠어요. 사람 얼굴은 다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 얼굴이 아니라 사람 인두껍만 썼지 사람 얼굴이 아니예요.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마귀가 주체 영으로 있기 때문이예요. 마귀가 구세주 얼굴을 바라보다가는 마귀가 죽으니까 마귀가 바라보지 않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가로막는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이라고 해야 돼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라볼 수 없게 가로막는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가로막는 그 마귀를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이라고 기도하면 다시 바라봐지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제단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뜯어지라고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예배를 볼 때는 바라봐지는데 예배만 끝난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니까 그 눈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 얼굴이 나타났을 때 바로 마귀가 죽는 거예요.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초초로 늘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야! 기도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야. 바라보는 것도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이긴자 얼굴을 새기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다가 되는 고로 그냥 마귀가 그대로 죽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죽으니까 이긴자의 얼굴이 새겨지지 마귀가 죽지 않고서는 이긴자 얼굴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새기려고 해도 사진을 볼 때만 새겨지고 또 사진을 넣으면 새겨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나라의 의식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바라봐지게 되면 죽기 때문에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는 생활을 하라고

사진을 한 장씩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매일 나오는 이유는 매일 나와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 마귀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단에 나오면 마귀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와, 들어오면 죽으니까. 습관적으로 매일 나오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불교식으로서는 성불이 되고, 완전히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마귀가 죽는 상태로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감로이슬이 가는 것이지 마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감로이슬이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돼

그래서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야 은혜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념이 많은 사람은 이 길을 못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야 은혜가 연결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런고로 마음의 사이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해야 돼?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아무리 해도 안 되어 울면서 애원을 하고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빠지는 이 길을 못 가. 애걸복걸 하면서 어떤 때는 매달려야 구르면서 몸부림 치면서 매달려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앉아서 될 줄 알고 하지만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절한 심정이 하늘을 찌를 듯한 심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2001년 2월 26일 말씀 중에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시대마다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잃어버린 본향(본성)에 대한 향수!! 이는 어쩔 수 없는 본향을 잃어버린 생명체의 '피의 속성'인 것이다. 세상 말로 "피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자신의 '본향에 대한 향수'는 본성적으로 지울 수 없다. 짐승조차도 죽을 때면 자신의 본향이 그리워 그가 왔던 고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고 한다. 시인 노천명은 그녀의 시(사슴)에서 잃어버린 본향(본성)에 대한 향수를 짙게 노래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이여 언제나 잠잠은 편 말이 없구나 관(冠)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族屬)이었나 보다.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 보고 잃었던 전설(傳說)을 생각해 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鄉愁)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山)을 바라본다.

현재의 우리 인간은 비록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도 아련히 떠오르는 자신의 기억 속에는 그 옛날 참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수에 빠져들곤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시원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피의 부르짖음을 현상인 것을 누가 알 것인가?

캐나다 등지에서는 인디언들을 농사짓는 데 이용한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하고 일을 잘하다가도, 일하는 중에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하면 하던 일을 쫓겨치고 그 발자국을

따라 며칠이고 숲속을 헤맨다고 한다.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사람간의 약속이나 계약 따위는 그들의 핏속에 녹아든 '수렵의 본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여러 정의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본향에 대하여 이끌려 행동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각 있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밝히기를 강렬히 원했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현실주의자인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본성을 정의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한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을 성욕과 식욕, 또는 공격성 등 동물적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주창한 설에 의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순자가 주창한 설에 의해 악(惡)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삶의 본능이란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죽음의 본능이란 생명체로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즉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전쟁, 증오, 살인, 절망, 공포, 자살, 파괴 등은 죽음의 속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쉘 영웅하게도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셋은 "인간에게



아누스의 두 얼굴

본성이 없다. 역사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에게는 만고불변의 본성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본성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역사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뜻이다. 저 유명한 유물론자인 마르크스는 인간의 '불변적 속성'을 보편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런 다음 각자의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변형되는 속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고픔이나 성욕을 인간의 불변적 속성이라 보았다. 돈이나 재물은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 보았다. 사실 현재 상태의 인간을 놓고 본다면, 어느 이론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인간의 본

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본성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태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것은 인간과 세계의 양상을 두 가지 성격으로 크게 나누어 봄으로써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선과 악, 양심과 욕심,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즐거움과 고통 등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의 상대성뿐만 아니라, 낮과 밤, 양과 음, 평화와 전쟁, 여름과 겨울, 건설과 파괴, 진실과 거짓 등이 세계 내의 모든 존재와 행위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얼굴을 가진 인간,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두 세계가 함께 이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 원리에서는 이러한 두 상반되는 양상들을 한마디로 '생명의 본성(생명의 신)'과 '죽음의 속성(사망의 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두 속성이 원래부터 인간과 이 세계 내에 함께 뒤엉켜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논리로 풀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영생학회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본래 죽음과는 상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 영생의 속성이야말로 인간

과 세계의 진정한 본질이고, 죽음의 속성은 외부로부터 침입된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나갈 것이다.

생명의 본성

그렇다면 왜 생명의 본성이 인간의 참 본성인가를 살펴보자. 우선 프로이트가 말한 '삶의 본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간다. 프로이트는 삶의 본능을 식욕과 같은 자기 보존적 본능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욕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가 인간의 불변적 본성을 성욕과 식욕으로 본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인간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도외시한 채 동물성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식욕과 성욕, 수면욕으로 확대해석한다면 크게 오판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어느 한 단면만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누구나 예외없이 착각에 빠지는 경우를 잘 보아왔다.

과연 그럴까한 논리와 머리로는 설명하는 가상설의 한계에 틀을 벗어나 누구나 가슴속 이성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참된 본성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본성이란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듯이, 인간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이성으로 비추어 보아 한 점 의혹이 없는 속 시원한 논리의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생학회는 인간의 생명의 증주가 되는 피가 이 본성에 대한 진실을 통쾌하게 해명해 줄 것이며, 만고불변의 진리가 피의 실체를 낱알이 아닌 것에 있음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